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 56만명 일자리 감소·GDP 4%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사업별·지역별 차등화 한 목소리
적용시기 현행보다 확대 방안도
“최저임금 인상, 경기회복 악영향”

올해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 1만원으로 올리면 총실질생산은 72조3000억원, 실질국내총생산(GDP)은 4%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도 56만3000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능한 가운데 현재 확립돼 있는 최저임금을 사업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결정하는 방식도 2~3년에 한 차례씩으로 적용 시기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중기중앙회 김문식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발제를 한 파이더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수요 감소→생산 감소→소비 감소 등의 경제적 파급 경로로 이어진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회복 중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해 9000원이 되면 총실질생산은 -16조9000억원, 실질GDP는 -0.9%, 일자리는 -13만4000명으로 각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9.1% 올린 것도 소득·일자리·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업종의 고용이 줄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역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예를 들면서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 총소득 증가율은 4개 분기 연속 하락한 반면, 소득이 높은 5분위 소득 증가율은 예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고용증가율도 종사자 5인 미만 기업은 -0.88% (2018년), 2.41% (2019년), -1.59% (2020년)로 2017년과 비교하면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이 기간 2.02%, 2.77%, 3.05%로 각각 늘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기업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산업별, 규모별로 노동생산성이 다르고 지역별, 연령별로 근로자 생계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 주휴수당도 5인 미만 자영업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생산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에 소홀했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표그룹, ‘삼표몰탈몰’ 오픈

드라이모르타르 제조업 최초 e커머스 진출

B2B서 B2C로 사업영역 확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

삼표그룹이 드라이모르타르 제조업계 최초로 e커머스 채널까지 판매망을 넓히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존 기업 대상 사업(B2B)에 머물렀던 사업 영역을 소비자 대상 사업(B2C)으로 확장해 다양한 고객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삼표그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삼표몰탈몰(SAMPYO MORTAR MALL)’을 오픈,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스스로 집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DIY(Do It Yourself)’족을 중심으로 부쩍 늘어난 실수

요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드라이모르타르는 철물점 등에서 25kg·40kg 단위로 포장해 판매된다. 이 때문에 철물점과 거리가 멀거나 운반 수단이 없는 일반 시공 작업자 등 실수요자들은 모르타르 구입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삼표몰탈몰에는 일반범용, 시멘트계 재료의 충전제인 무수축 그라우트, 보수용, 자기수평 등 모르타르가 구비돼 있어 철물점에 가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각 제품 포장지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시공 영상도 볼

수 있다.

삼표그룹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전화나 모바일 주문을 통합한 ‘삼표 스마트오디’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일반 실수요자들의 주문 편의를 위한 온라인 몰까지 유통 플랫폼을 확대해가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2014년에 모르타르 시장의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출한 이후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 고객의 소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삼표몰탈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31곳 추가지정

중기부 15곳, 환경부 16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3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을 총 100곳 선정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사업 전 주기를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처음 41곳(중기부 20곳, 환경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31곳(중기부 15곳, 환경부 16곳)을 추가 지정됐다.

지난 2월9일 공동으로 선정 공고를 낸 후 부처 협의를 거쳐 평가했다. 이후

윤승준 서울대 교수와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난달 28일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벤처 15곳을 지정했다.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곳, 신재생에너지 2곳, 첨단수자원 2곳, 그린IT 2곳, 신소재 1곳, 청정생산 1곳 등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 16곳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선정했다. 16곳은 각각 스마트 물 5곳, 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4곳, 청정대기 3곳, 탄소저감 2곳, 녹색 융·복합 등 기타 2곳이다.

/김승호 기자

유한킴벌리-서브윈, ESG 경영 확대 맞춘

친환경 활동·상품개발 협력

유한킴벌리와 서브윈이 손잡고 ESG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공급을 확대한다.

유한킴벌리는 서브윈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브윈에 ▲FSC 인증 등 비훼손 산림환경에서 길러진 나무를 사용한 제품 ▲환경표지인증 제품 ▲지속가능한 원료가 적용된 제품 ▲생분해 클레임

제품 등 친자연 제품들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서브윈의 B2B 고객사들은 플라스틱 사용 절감 등 ESG 경영 가치 제고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와 서브윈은 친환경 활동 지원 및 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사들이 ESG 경영에 부합하는 소모성 자재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서울 송파구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열린 유한킴벌리와 서브윈의 전략적 제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유한킴벌리 류재욱 상무와 서브윈 유재한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업진흥원 ‘도전 K-스타트업’ 청년 참가자 모집

만 2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발굴·지원

만 29세 이하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창업진흥원은 오는 7월21일까지 ‘도전 K-스타트업 2021 청년리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1’은 10개 부처 협업으로 운영하는 국내 최대 창업 경진대회로 총 상금만 15억3000만원에 달한다.

‘도전! K-스타트업 2021’의 9개 예

선리그 중 하나인 ‘청년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리그 참가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1년 이내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서면평가→1차 발표평가→선·후배 멘토링→2차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2팀이 ‘도전! K-스타트업2021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에 국민의힘 “영혼 없는 사과”
▲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구속기소 /사진 뉴스스

▲ 윤석열 “LH 독과점 풀어야...지역별 소규모 재개발 관심”
▲ 韓 올림픽 ‘독도’ 표시 시정 요구에日 거듭 “수용못해”



▲ “SEC, 지난해 테슬라에 머스크 트윗 감시 소홀 경고 서한”
▲ 텐안만사태 기념 홍콩 6·4 박물관, 개관 사흘만에 폐쇄돼 /사진 뉴스스